

# 전여대협 상반기 총화서

(전여대협 지역여대협 중점 평가)

## 한발한발 전진해왔던 상반기

한국사회의 모순이 격화되면서 여성의 처지와 조건을 규정하는 제도순구조들이 더욱 첨예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점점 주체역량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요구되는 투쟁의 내용과 형태 방법이 다양해지는 것 또한 현실이다. 전반적인 학생운동의 현실과 여학생운동의 현실적 상황에서 다양한 투쟁의 요구를 실현시키는데는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2000년 한발한발 정세의 요구를 받아안고 주체의 결의로 극복해 들어가면서 발전해가는 과정이었다.

예년과 다르게 전여대협 6기의 출발은 그리 순조롭지 않은 상황에서 출발하였다. 전여대협 중앙이 늦게 꾸러지고 각 지역여대협의 구도가 안정적으로 꾸러지지 못한 상황에서 전여대협 6기가 출발하였다. 김양부 선생님 투쟁을 맞으면서 전여대협 6기 임시체제가 꾸러지고 김양부 선생님 강령투쟁때 전 여학일꾼들이 모이는 결의대회를 치루면서 전여대협 6기의 건설과 윤희한 투쟁을 힘차게 결의하는 자리였으며 이후 400차 수요집회를 서울 도심한복판에서 전여대협 깃발을 휘날리며 성사시키면서 전여대협의 첫 투쟁의 포문을 열어제겼다. 그이후 3월 각 대학에서 개강을 맞으면서 개강사업과 함께 각 대학의 출범식에 주한미군의 범죄에 대한 규탄속에서 반미투쟁을 힘차게 결의하는 자리가 이어졌고 이는 전여대협 총회를 통하여 결집되는 자리가 되었다. 6기 전여대협의 정식체제가 출범하면서 각 대학과 지역의 반미투쟁,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투쟁, 성폭력 학칙제, 개정 투쟁이 대학의 대중제 사업과 맞물리면서 진행되었고 이는 5월 말 50만 여학우 조직인 전여대협 출범식을 백만학우들앞에서 진행하면서 여대협위 위상을 높이고 투쟁의 과제를 백만이 합의하는 뜻깊은 자리를 맞게 된다. 그리고 출범식을 거치면서 전민특위, 성폭력 학칙개정 공대위가 결성되고 이 흐름이 6월 들어 기할 농활의 연대사업과 함께 방학까지 이어진다. 전여대협 여학일꾼들은 잠시 숨 고를 시간조차 접어둔채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더욱 높아진 통일투쟁의 기운을 온몸으로 받아안고 투쟁의 모범 전여대협 통일 선봉대의 위용찬 활약과 각 지역의 통일축전에 적극참여하면서 8월 15일 역사적인 통일대축전의 자리에 50만 여학우 뿐 아닌 2천만 여성민중과 함께 하는 여성통일한마당을 성과적으로 성사시키는 과정이었다.

6기 전여대협은 학생운동의 어려움속에서 여학단위또한 움츠러들고 슬금슬금 다시 기지개열 날을 기다리면서 98,99년 올해 2천년까지 나서는 난관과 어려움을 주체의 결의로 뛰어넘으며 한발 한발 전진해온 상반기였다. 많지 않은 숫자의 여학일꾼들이지만 한사람 한사람의 역할을 소중히 하고 서로의 능력을 높이며 여학생운동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해. 전여대협 산하 여학일꾼들의 이름 하나하나, 출범식에 출빈사에 원종이위에 꼭꼭 눌러진 소중한 결의들이 전여대협의 발전의 바로 밑거름이자 승리의 주인공이다. 아직 촛불을 끌때가 아님니다. 결의된 핵심을 중심으로 여학생운동의 대중화에 대한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새롭게 전여대협 투쟁의 역사를 만들어갔던 2천년, 많은 성과를 뒤로하고 냉철히진다면 우리를 둘러싼 여학단위 현실의 열악함이 목도될 것입니다. 전여대협의 위상이 높아지고 여학생운동의 영역들이 넓어지면서 그와함께 여학생운동을 끌어갈 일꾼들이 함께 불어나고 여학생운동조직의 건설이 확대 강화되어 가면서 점점 세가 불어나가야 할 것이다.

*<반미투쟁의 결의>*

우리조직의 역할과약을 세밀히 하고 있지 못하다. 학우대중과 기층여학일꾼을 많이 만나지 못하고 있다. 여성운동조직과의 연계 부족

*남북공동선언*

**대안**  
여학생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높일 수 있는 학습강화 목적의식적인 정세토론을 중앙에서부터 모범을 보이며 기층에까지 합의확산 여성운동조직과의 일상적 교류와 연대 여학우 대중과의 만남, 기층일꾼과의 만남을 강화 정세토론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통신총화 및 신문읽기등의 활동 정례화 (부산대에서의 신문 스크랩)

## (2) 정세에 기반한 투쟁과제 및 사업의 도출이있는지 평가

전반적으로 올해 정세에 입각하여 투쟁과제를 제출하였다.

## 한계점

각각 정세에 기반한 투쟁과제의 제출은 되었으나 주체적 역량에 맞게 제출되는 데는 한계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투쟁에 대한 정세인식의 부족

*→ 동여대인데 정세성 문제가 하나, 시가지별 투쟁과제들, 주체적 문제들*

## 1. 대중투쟁영역과제 평가

### (1)주한미군철거투쟁을 중심으로한 반미투쟁

#### 1)반미의식화 성과

올해 전반적인 반미정세의 성숙과 주한미군철거투쟁에 대한 각계각층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전반적인 민중민주운동 단위의 반미의식화 사업이 전개되었다. 여학단위에서도 모든 사업과 투쟁에 주한미군의 범죄에 대한 내용을 알려내면서 반미로 모든 의식화의 지점을 맞추어 들어갔다.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투쟁, 미군범죄의 심각성, 미군범죄의 심각성*

#### 한계

반미의식화를 위한 다양한 형식과 방도를 고민하여야 하는데 의식화의 수준이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음 여학단위 특성에 맞는 반미의식화의 과제가 구체적으로 제출되지 못함 발빠른 반미투쟁의 고리를 정세화시켜내고 공론화하지 못한 한계 서정만, 감성적외 사진 등 미군범죄의 발생을 큰 투쟁으로 승화시켜내지 못한 한계

*대중투쟁의 심각성, 대안, 대안, 대안*

### 2)전민특위 성과

남북해협의 함께 하는 반미투쟁의 고리를 여학단위 여성단위에서도 주체적이고 주도적으로 받아안고 진행한 성과

#### 한계

전민특위의 상을 합의하고 인식하는데 나서는 한계

하지만 아직도 현실유지에 급급하고 주체의 결의를 높이는 것이 자체실무적 활동의 배가로 이해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학생운동에 관심있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잘 평가하면서 선전을 하나를 만들면서도 좀 더 많은 여학우 대중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며 여학우들을 주인공으로 세워가면서 투쟁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평가해보아야 할 지점이다. 대중을 만나고 조직하는 것, 사업과 투쟁을 통하여 핵심을 발굴하고 그를 계속적으로 육성하는 것 여학생운동을 대중화해 나갈 책임과 과제가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한다.

## 0. 정세인식에 대한 평가

### (1)정세를 인식하고 분석하는데 있어서

#### 성과적 지점

2천년 민족민주운동의 전반적인 정세에 대한 통일적 인식과 함께 여학단위의 독자적 주체적 정세를 뽑아내려는 노력이 점점 성숙되는 속에서 전여대협 총노선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합의확산해 들어가는 과정이었다.

정세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사업과 투쟁을 정세적 일관된 흐름속에서 풀어가려 했다.

#### 한계적지점

전반적인 정세의 인식은 있었으나 급변하는 정세를 반빠르게 인식하지 못한 한계

정세토론이 기층까지 일상화되지 못한 점

여성정세의 파악이 여전히 미흡한 지점이 있다.

#### 원인

정세파악의 중요성을 백속없이 각인하지 못하고 있다.

차름 묻든 배가 항해를 하든지 목적지까지 가기위해 지금 날씨는 어떠한지 어떤 지점이 교통이 혼잡한지, 어떻게 가면 가장 빨리 갈 수 있는지 및 운전자의 건강상태까지 출발하기전 많은 것을 점검한다. 투쟁과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이와 같이 먼저 투쟁하기 전에 투쟁과 사업에 나서는 여러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기본이자 첫출발이 될 것이다.

정세를 옮겨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야기되는 수많은 오류와 갈등이 존재한다. 시간이 없어서 정세토론이 일상화되지 못한다는 말은 물론 일면 현재 우리 운동조직의 현실을 이야기 하는 것이나 중요함을 각인한다면 정세토론이 결코 진행할 수 없는 일정이 되지 못할 이유 또한 없을 것이다

정세파악하는 요령 및 수준이 아직 높지 못하다.

정세파악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을 몰라한다.

-정세파악이란 적과 나의 역량타산을 말한다. 그렇다면 여성정세를 뽑아내는 것도 여성업의 적과 여성운동의 주체역량은 파악하는 것이 주가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적이라는 것은 바로 여성을 억압하는 제모순을 밝히고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밝히는 것인데 아직 여성업의 원인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여성에게 더욱 억압적으로 작용하는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즉 여성문제 여성학 학습의 부족

좀 더 구체화된 자주적 여학생운동이론의 필요

각종 언론매체를 비롯한 정보이용의 한계

*2000년 여학생운동의 세력?*

또한 아의 역할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계획은 세웠으나 구체적이고 가시화된 전민특위의 사업이 부재한점 연대단체를 좀더 광범위하게 꾸리고 이미 꾸려진 단체 발동에 적극적이야

## 3)기지촌 활동

### 성과

예년보다 높아진 기지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전지역의 기할조직화로 모아진 성과 새우터와의 연대사업이 기할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전개

### 한계

소수의 기지촌활동으로 국한된점 -기지촌활동을 대중화시켜 준비하는데 한계점 새우터와의 연대사업의 결적 향상이 요구된다.

## 4)기지항의방문투쟁

매항리투쟁부터 각 지역의 기지항의방문투쟁이 유희들어 매우 활발히 전개 각 대학별로 지역별로 양민학살지부터 기지항의방문이 빈번해지고 이속에 여학일꾼의 다수참여, 전여대협 총회와 함께 진행된 군산투쟁

### 한계

여학단위의 주동성, 주체적인 항의방문투쟁이 아쉬움

## 5)일상적 급요점회

전반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

*7-11세 이상과 대중의 급요점회, 2월 28일 투쟁, 7-11세 이상과 대중의 급요점회*

### 반미투쟁의 과제

여학우들로부터 대중적 공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여학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반미투쟁과 사업에 대한 요구

## (2)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투쟁 성과

3월 1일 400차 수요집회를 성과적으로 성사하면서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투쟁의 포문을 열고 이를 4월 학생정적 지역별 학생법정으로 이어지고 대학별 대중제 및 나눔의길 방문사업으로 대중화 되었으며 이후 6'15남북정상회담기간 남북 일본군위안부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이것이 8'15 조국통일일정으로 이어지면서 2000년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투쟁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다.

### 한계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투쟁을 정세적으로 잘 인식하지 못한 한계 그러다보니 4월 이후 이 투쟁의 구체적인 활동이 미비 -반미투쟁을 우선으로 놓는다는 것에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어떻게 배치하여야 할 것인지 난감해 하였다.

기간 성과적이었던 남북해의 3차 연대의 고리를 학생단위에서 계속 이어내지 못한점

정대협과의 연대사업이 좀더 적극적으로 되지 못한한계

학생법정준비에 전여대협의 주동성이 부족한점

*→ 7-11세 이상과 대중의 급요점회, 7-11세 이상과 대중의 급요점회*

모범  
모의수요집회/ 나눔의집 방문/학생전범법정성사

과제  
하반기 12월 국제법정준비와 조국통일투쟁과 맞물려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투쟁을 적극화  
대학에서의 수요시위 실현  
정대협과의 연대강화

(3)여성민중생존권투쟁  
3월 8일 세계여성의날 투쟁정도

경제적 파악이 미흡  
구체적 활동 미흡

원인  
각 여성단체와의 연대사업이 한계가 있고 여성운동조직의 각각의 특수성으로 결합지점을 찾기가 어려움  
*여민회같은 조직은 각자 각자 할 일 해야 할 것 같아... → 연대사업*

대책  
연대사업의 주제를 명확히 할 것  
연대단위와의 일상적 연대의 틀 확보  
정세적인 사안에 민감히 대처  
학내에서 할 수 있는 투쟁방도 모색

모범  
노동자기활동/ AMK 노동자 투쟁 결합 *21년 12월 15일 시위하는 거*

(4)성폭력 규제 학적 제개정 투쟁

성과  
성폭력 학적 제개정투쟁을 주요한 투쟁으로 제기하고 공대위를 꾸려 전 대학과 지역에서 공동적 투쟁을  
발여내도록 하는 성과적지점  
그동안 제기중심과 결의중심의 성폭력 학적 제개정 투쟁을 거의 전대학에서 구체적으로 가시화한면이  
보인다.

한계  
학적제개정 투쟁을 전면적으로 대항화시킬 수 있는 방도 고민  
*100%를 보장하지는 못하겠지만... → 시위하는 거*

과제  
미조직단위나 전여대협에 소속되어 있지 못한 단위까지 함께 꾸려나야  
여성단체와의 연대강화  
전여대협 차원의 언론화사업  
*이런 문제들 해결해야!!*

(5)조국통일투쟁

자주적 여학생운동을 전면화하자  
자주적 여학일꾼이 되자.

(1)자주적 여학생운동전면화에 있어서

여학생운동의 과제로 늘상 제기되는 것은 바로 자주적 여학생운동이론의 정립이다. 기간 여학생운동을  
이끌어온 선배들부터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학생운동을 풀이오면서 경험과 교훈을 체계적으로 정리  
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가 나아가야 할 운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여학생운동이론의  
정립일 것이다.

예년처럼 올해도 여학생운동이론을 더욱 성숙시킬 것에 대한 요구속에서 자주적 여학생운동이론 정립을  
위한 학습과 토론을 중요한 과제로 제출하였다.

전여대협에서도 총회, 출범식, 수련회를 통하여 자주적 여학생운동이론을 전여대협 기층까지 전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각 대학과 지역에서도 여성학 학습을 강화하려는 시도들이 엿보인다.

하지만 자주적 여학생운동이론 여학생운동의 사상과 이론을 정립하려는 노력이 중요하게 제기된 만큼  
논의되고 토론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다. 구체적인 학습과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현 여학  
생운동의 풍도와 이를 목격의식적 지도하는데 중앙에서부터의 노력이 아쉬운 것이 사실이다.

좀더 여학생운동의 핵심들부터 자주적 여학생운동이론을 깊이있게 연구하고 이를 정책화하려는 노력이  
구체적 대안을 가지고 준비되어야 한다.

연구소위구성에 대한 고민 → *이론적인 기층에서의 고민 필요하고 신진대사 2년이상*  
*현실화하기가 어렵다.*

(2)자주적 여학생운동가가 되자

일꾼단위와 여학생회 조직건설강화  
전반 여학단위의 조직생활-운영 및 학습 교육  
여학단위의 조직원활과 조직건설 노력  
-좀더 기층총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평가 요

*• 전대위 활동 - 2년이상 생활  
- 기층 총회  
- 전대위 생활 지도*

상반기 평가입니다. 전체적인 평가는 여기에 더 포함이 될 것입니다. 먼저 상반기 평가에 대한 공유  
를 하고 1년 평가에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성과

올해 통일 의제속에서 여학단위의 통일투쟁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통일선봉대 지역축전의 8월 통  
일행사에 적극적 참여의 폭이 확대되었다.  
여학단위뿐만이 아니라 여성민중들과 함께 통일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연대연합을 시도함으로써 연대의  
물꼬를 트는 과정이 있었다.

한계

조국통일투쟁의 활동이 너무 늦게 발동이 걸림  
아직까지 투쟁과 사업을 대중적으로 펼쳐내는 데 아쉬움  
범학원 산하 여학생조직 이북과의 자주교류가 진행되지 못한지점

*한편의 대학  
이론은 아예 없었음  
180만 시간, 1500명  
조직적인 1800명  
2월 -*

(6)연대사업의 평가

성과  
각투쟁영역별로 연대사업이 주요한 과제이자 투쟁의 방도로 설정하고 연대사업을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그러면서 개별 대학별로 연대사업을 진행하려는 노력이 돋보이고 초청사업과 공동으로 행사준비등 다  
양한 폭과 수위로 전개되었다.

*능동적 참여 증가!!*

*연대의 틀은 각급의 (한정) 있는 것으로.*

한계

전대학과 지역이 전일적으로 연대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대학별 지역별 편차 존재  
연대사업의 중요성은 느끼나 주체가 명확하지 못하고 주체가 꾸러지더라도 일상적이고 일상적인 연대  
되지 못하다보니 서로의 사업의 초청하는 수준에 그림  
전반적으로 여성단체의 수준이 다양하고 연대의 폭이 크지 못함

과제

연대사업 주제마련 일상적이고 지속적 연대모색  
연대단위와의 의사소통 및 구체적 사업에 대하여 초기에 합의 공동투쟁, 공동사업 활성화

(7)전반 대중투쟁과제의 실현정도

제기된 대중투쟁과제를 지역과 대학별 편차는 있지만 대부분 사업과 투쟁에서 녹여내려고 애썼다. 하지  
만 이것이 여대협을 제외한 대학과 단위의 자립자활적인 투쟁과 맞물려 진행되는 데는 일정 한계가 있  
다.

일꾼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많지 않은 조직역량속에서 투쟁을 전개해온 헌신성은 돋보이나 이것이 정  
세의 요구만큼 진행되는 데는 아직 부족한 면이 보인다.

그이유로는

투쟁을 이끌어갈 주체의 준비정도 및 숫자의 부족  
대중투쟁의 조건을 성숙시키지 못한채 급박하게 꾸러내는 정  
기층의 준비정도에 맞게 사업과 투쟁을 전개하지 못한점  
대중투쟁을 하는데 과감성이 부족  
역학생회 대중 투쟁과 대중사업에 대한 정형부족  
장기적 계획과 구도가 부족함

*투쟁을 전개해온 헌신성은 돋보이나 이것이 정  
세의 요구만큼 진행되는 데는 아직 부족한 면이 보인다.  
180만 시간 투쟁 2100명  
180만 시간 투쟁  
→ 큰 180만 시간 투쟁  
180만 시간 투쟁*

## 2001년 여학생회 선거

0.들어가기

여성의 힘으로 개혁해온 새로운 천년  
50만 여성의 단결된 힘으로 자주적 여학생회 건설하여  
자주통일조국, 평등한 인간해방의 2001년을 만들어갑시다

여성의 시대, 자주의 시대라 될 것이라는 21세기 그 찬란한 세세기의 빛이 울려퍼집니다.  
20세기 새로운 천년의 출발은 기간 2천년 아니 기원전까지 인류의 출발과도 흡사하게 오랜기간 차별과  
억압속에 고통받았고 한편으로 즐기게 저항하며 살아왔던 여성들에게 있어 서 기간 여성 인류의 역사  
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세기 건설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을 꿈꾸며 새롭게 결의를 다지는 해였습니다.  
특히나 바로 전 이 땅 한반도 20세기는 참으로 격동의 세기였습니다. 1900여년동안의 변화보다도 더 빠  
른 변화와 사건들로 점철된 세기. 특히 한반도는 그 시작부터 말까지 세계의 변화의 흐름과 더불어 열  
강의 팽탈진속에서 식민지와 전쟁 분단을 겪었고 내적 민주화와 경제적 발전의 도상에서 파란만장한 백  
년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격동의 변화는 여성들의 삶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근대화와 더불어 봉건적 인식  
이 깨어지면서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사회의 주인으로 나서야 한다는 남녀평등의식을 포함한 사상들  
이 붐비고 제도적인 신분제 철폐와 경제적 구조의 변화는 여성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가질 수 있게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 질곡의 식민지역사와 전쟁은 여성의 삶을 나락으로  
빠뜨리게 되었고 근대화 경제부흥은 여성에게 또다른 사회적 착취를 남겨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은 그저 상황에 순응할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은 민중이고 여성 또한 이 땅의 주인이라는 권리의  
식이 높아지고 여성의 힘으로 여성들의 문제를 풀어나가고 하는 집단적인 움직임들이 가시화되면서 노  
동쟁의 및 투쟁들이 이어지고 여성들의 조직이 건설되면서 여성해방 인간해방이라는 과제사 사회적 움  
직임으로 나서게 됩니다.

이러한 많은 변화와 발전이 교차되면서 살아왔던 지난 20세기의 여성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천년  
새로운 세기를 맞는 시점에서 여성은 다시한번 새로운 길로 200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2000년 변화한 것과 변화하지 않은 것들

2000년 새로운 세기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자주와 민족 대단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나노소 가릴  
것 없이 올해 6'15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에 불어닥친 통일의 바람은 왔다 사라지는 바람을 넘어 전민  
족을 품는 도가니로 돌아가기 충분했습니다. 첫 남북 정상회담의 상봉과 이어지는 수뇌회담 이산가족 방  
문, 경선철도복원등 구체적인 통일을 위한 가시적인 활동들이 나날히 신문지상을 오르내리고 있습니  
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민족 대단결의식이 고취되어가고 있고 이는 자연스럽게 민족자주의 문제로 나아  
가면서 주한미군의 주둔의 명분을 희석화하고 있고 1999년부터 터져나오는 노근리를 비롯한 양민학살  
문제 이후 주한미군의 범죄 및 배양리문제들로 이어지면서 소파개정의 전국민적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이는 미제의 경제침탈과 맞물려 큰 투쟁의 한반도에 대한 지배와 간섭을 거부하는 투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반미와 통일은 결코 운동권들만의 전유물이거나 아님 4천만 7천만 겨레의 공동의 민족  
적 과제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주, 민주, 통일운동에 유리한 정세를 조성하고 각 민족민주운동세력을 굳게 단결하게 하는 계  
기가 되었고 국가보안법이 유명무실해지면서 실제로 탄압의 명분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 미국은 점점 세계적인 자신의 지위의 몰락과 함께 한반도의 영향력이 멀어지고 있고 미국을 위시로 한 친미 보수세력들도 자체적인 내분과 경쟁으로 점점 민심을 잃고 지지기반이 약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국과 지배보수세력들은 줄아진 인지를 만회해보려고 갖은 술책과 이태올로지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고 탄압의 교묘한 예봉을 세우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며 운동사회의 내부를 교란시키고 분열하려는 책동을 지속해가고 있습니다.

여성들로 특화시켜 보면 여성민중들의 삶의 질과 쾌락을 가져오는 많은부분들이 분단으로 인한 한반도의 전쟁위협과 이를 고착화시키면서 여성의 삶을 직간접적으로 억압하는 제국주의의 본질에 눈을 떠가고 반미 통일 투쟁에 스스로 주체가 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일부 과격한 여학생들만 소위 한총련 여학생들만 의친다는 반미, 통일의 문제를 주한미군철거를 외치는 여성단체들의 소리가 높아가고 기지촌등 절체한 미국에 의한 직접적 피해와 고질적인 가부장제적인 여성의 성을 차별하고 착취하는 과정속에서 나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들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여성통일행사가 꼬리도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이것이 단순히 대세에 따른 한번의 행사라기 보다는 주요한 여성들의 과제로 되어가면서 여성의 삶과 민족의 삶을 총체적으로 인식하면서 사회의 주역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이는 한때였습니다.

여성들의 삶을 가장 1차적으로 유린하는 성폭력이나 성문제에 있어서 2000년은 참으로 특이할 만한 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더 이상 여성들이 피해자로 뒤에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지도층, 운동계층에 까지 전반에 걸친 성폭력을 고발하고 당당히 해결의 주제로 나서면서 성폭력, 매춘 문제에 있어서 전체적 의식의 전진을 가져오게 했으며 이는 광범위한 성폭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결성된 여성노조를 필두로하여 여성들의 정당한 노동의 권리를 인정받고자하는 움직임이 개별적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성노조의 형성과 각 사업장별의 투쟁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선거준비에 들어가기전에 임하는 자세

- (1)조국과 민족의 운명에 나의 운명을 일치시켜 들어가야 합니다.
(2)여성민중의 삶을 자신의 삶과 동일시하고 여성민중을 중심으로한 대중관을 명확히 세워야 합니다
(3)여학생회 조직을 나로부터 건설강화하겠다는 의지로 조직과 대중앞에 결사관철하는자세를 견지하여야 합니다

2. 2001년 여학생회 선거가 갖는 의의

- (1)선거의 의의
1)2000년 한해의 사업과 투쟁을 여학우들과 함께 총화하고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2)2000년의 평가와 더불어 2001년의 여학생회가 나아가야 할 전망을 합의하고 확산하는 자리입니다.
3)지금 당면한 여학생운동의 투쟁과제를 실현해 가는 연속선상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여학우들과 함께 합의확산해가는 자리입니다.
4)여학원문들을 발굴 단련시켜서 여학생운동 역량을 비약적으로 발전 시켜나가는 자리입니다.

(2)선거의 목표

- 1)2001년의 여학생운동 더 나아가 여성운동의 전망을 확고히 세우고 합의확산하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투쟁

- ③여성민중 생존권쟁취 투쟁
-여성노동권 확보 비정규직 권리찾기 투쟁(여성노조와의 연대사업 강화)
-여대생 위안 문제 (여대생 실업 대책위 구성 및 대학 취업관련 대책강화)

- ④성문화 정착, 성폭력 척결 투쟁
-매춘 문제

- 올바른 학내의 성문화 정착
성교육 및 성학강좌 증강
학내 성폭력 학칙 실제화

- ⑤연대연합의 강화
지역 여성단체와의 일대일 교류 강화
사업별 대책위 및 공동 연대투쟁의 강화속에서 지역운동체 건설

⑥학원자주화 사업

- 복지사업
여학생휴게실 및 화장실 문제 개선
-문화사업

2)조직영역

- ①자주적 여학생회 강화
자주적 대중조직으로서 자주적 여학생회의 위상을 되찾자

②기층조직의 건설강화

- 파여학생부건설
-소모임
-대의제체 및 공동모임 건설
③사업 방법 형태의 다양화 참신화
여성문화제 및 여성관련 사업의 새로운 형태 및 정형 창출
사이버시대에 맞는 여성운동단위의 사이버 공간 마련 및 활동
④여학생회 전체 운동단위와의 독자성과 통일성
학생회단위와 여학생회와의 의사소통강화
성폭력 및 여학생회 사업 공동활동
⑤전여대협 지역여대협 강화
-전여대협 지역여대협 중앙조직 건설
-사상과 정견의 차이를 뛰어넘는 전국적조직으로 강화하자
-한총련과 단결하여 투쟁하자

4. 선거의 구체적인 실무관련

(1)후보선출

- 후보자 선출에 있어서 요건
여학생운동에 대한 신념과 애정 낙관
조직운영 및 대인관계 원만

(2)선거운동본부건설

- 1)선거운동원확보
2)선거운동조직건설
3)선거운동원교양

2)철저한 여학우들에 기반한 여학생운동 대중화의 기틀을 잡고 정형과 모범을 창출하자

3)과여부, 소모임에서 전여대협까지 전일적인 조직체계 건설에 사활을 걸자.

(3)선거의 과제

"총여학생회 건설, 단위여학생회 건설에 사활을 걸자."

1)선거의 내용적 측면에 있어서

- ①여학생운동의 전문성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 여학생회 선거 다음 여학생회 선거를 지워내자
②정치적 내용 본질적 내용을 기본으로 복지 및 학자 공약을 가미해 들어갑니다.
③정책선거를 기본으로 확고히 틀어쥐면서 건설적 못한 상대후보의 분열개량책등에 단호 히 대처해야 합니다.

2)선거의 조직적 측면에 있어서

- ①선거시기 여학생회 선거운동원으로 광범위하게 꾸려서 여학생회 일꾼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 선거운동에, 학생회에 관심있는 참신한 학우들을 과감하게 발탁 육성해야 합니다
②선거운동원에 대한 교양을 모든 활동에 기본에 두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③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본부의 조직의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고 혁명적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④대중이 있는곳이라면 어느곳이나 파고들어 대중들과의 결합력을 최대한 높여내야 합니다
⑤여학생운동의 내용을 전체 운동대오와 전체대중과 함께 합의해들여갈 수 있도록 조직적인 논의의 강화를 들어가야 합니다

3)당면한 투쟁을 펼쳐내는데 있어서

- ①투쟁사안의 내용을 선거와 따로 놓고 말고 함께 진행하여야 합니다.
②공동의 정책, 투쟁안을 만들고 합의해 들어가도록 합니다.

3.정책 총론 기초

(0)몇가지 핵심정세

(1)2000년 여성을 둘러싼 변화

- 1)주한미군에의한 살인사건-서정만 김성희씨 사건
2)장원사건 -진보운동전영대의 성폭력을 비롯한 사회 지도층 전반에 걸친 성폭력 문제
3)6'15공동선언이후 여성계를 비롯한 전단위의 자주교류 및 통일에 대한 관심고조
4)일본군 위안부 문제 -2000년 국제법정 및 남북해의 공동 해결노력
5)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투쟁
6)호주제철폐 가부장제 철폐투쟁

(2)영역별과제

- 1)대중투쟁영역
①조국통일투쟁

조국통일의 새로운 2001년을 여성의 주동적인 힘으로 맞이하자

- ②자주교류의 활성화

-이북여성 바로알기

-전여학단위 자주교류의 활성화

- ③민족 자주 쟁취투쟁

-주한미군철폐,소파개정 투쟁

4)각 활동

토론회

여학생회 건설이 왜 중요할까요

기간 여학생회 선거에 있어서 나서는 문제점

여학우들의 대중 의식호름 -여학우들 무엇이 대한 관심?

현재 우리 사회의 여성문제에 대한 시급한 과제

여학생운동에 있어서 나서는 문제점과 과제

# 선거정책모임 토론 내용

10/20/2022

잘못된 성문화의 왜곡, 지배의 논리 그대로 관철, 여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부족  
: 소위 날 여자로 보지 말라 - 기간 여성을 비하했던 것처럼 나를 보지 말라라는 말인 동시에 여성으로서의 긍정성과 정체성 인식의 부족

## 토론 1. 여학생회 여학생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란 무엇인가

-대부분 조직사상영역의 과제를 중요한 과제로 제출했습니다.

1. 여학원군의 여학생운동가로서의 **자긍심과 자기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체계적인 여학원단 훈련프로그램 및 **교양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
2. 여학생운동의 위상정립
3. 여학생운동의 자체 생산 구조를 가질 것
4. 연대사업의 중요성  
-소모임 사업운영의 진화  
-여성정세의 담보  
-대중투쟁의 흐름을 내올 수 있음
5. 대중사업에 있어서 자기 전문성 강화
6. 대학내 성문화 및 올바른 남녀평등의 상 정립
7. **총여학생회의 자립자활력** → **학생들을 돕는게**

2021년도부터는

## 토론 2. 여학우들의 의의흐름

1. 긍정적 요소  
적극성과 진취성이 날로 고양되어 가고 있음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의 폭이 점점 확대되어감  
-자발적인 여성문제 소모임이 많이 생김  
페미니즘 학습팀 구성, 자체 문화제 개최  
여성 예술인 활동 활발  
총학생회 및 학생회활동에 있어서 두드러지는 경향  
정치 및 경제의 주류화되는 의식이 높아짐-여성지도자과정 및 여성개발프로그램의 활성화

여학우들 지능이

2. 부정적 요소  
여성문제를 풀이하는데 있어서 **조직적 힘**으로 풀이하는 데 아직 한계  
여학생회가 여학우의 조직으로 만들어지는 데 아직 부족  
요구가 복지적 측면에 머무는 한계

3. 주요관심사  
취직 및 결혼 자신의 미래에 대한 관심 증가  
워치 및 무미는 것에 대한 관심 증가  
능력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외모를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사회풍토의 영향

위안부 기저촌 문제는 자기것으로 하는데 한계적으로 느낌  
-특정계급 및 과거사로 취급  
남성위주의 사회의 영향으로 남성의 논리를 그대로 반영하는 여성들  
-소위 남성같은 여성이 등장  
-동남상 남성의 긍정적 특징 부정적 특징 모두를 가지고 있음  
진취적 자기주장이 강하고 능력적임 - **2022/2/27**

여성의 담론화  
여성으로서 금기시 해왔던 문화에 대한 도전  
-월경 페스티벌, 성문화제

여성주의 비판과 수용  
우선 여성주의의 여학생운동 여성운동 흐름의 긍정적 요소는 자주적 여학생운동내에서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여성주의 운동에서 우선 여성운동의 주체인 여성에서 그 본질을 시작하여 여성운동 주체인 여성에 대한 긍정적 요소 여성의 생활학적특성을 공론화하고 이를 긍정함으로써 여성주체에 대한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시각형성에 도움을 준다.  
모든판단의 기준을 여성의 입장에서 철저한 주체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우리가 놓치고 쉬운 여성적 가치와 시각형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가치전복과 시각의 뒤집음을 통하여 대중에게 참신한 방법을 활용한 사업과 투쟁의 형태를 창출하고 있다

(3) 자주적 여학생회론  
왜 우리는 자주적 여학생회 건설을 이야기 하는가  
여학생회 건설에 대한 주요 담론  
학생회 전체적으로 역량 많이 축소한 상황에서 여학생회를 세우는 것이 역량 분산이라는 의견  
여학생회로 세우는 것보다는 여학생위원회나 여학생부로 세우자는 의견  
총여학생회의 위상에 관하여 의견

대부분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총여학생회 및 여학생회의 위상과 역할에 관한 문제 및 현재 여학생운동과 전체 운동의 역량 속에서의 배합배치의 문제들이 중심적인 담론이라고 볼수 있다.

왜 대중조직인 여학생회를 주장하는가?  
- 자주적 대중조직에 의하여 여학생운동은 풀이된다.

자주적 여학생회가 왜 여성민중중심의 위력한 체계인가?  
: 여사의 주인, 사회의 주인으로 서고자 하는 자주적인 본성을 집단의 힘으로 구현하기 위한 운동이기 때문이다. 자주적 여학생회는 사람중심, 학우중심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또한 민중중심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학생회 체계입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여학우 중심, 여성민중중심의 사상이 됩니다.**  
모순이 있는 곳에는 그 모순을 해결하려는 인간의 의지와 투쟁이 있기 마련입니다.  
즉 사람은 자신의 자주성이 무참히 유린당한다는 자각을 하면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투쟁을 전개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사람의 자주성은 가장 옹호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는 곳에 그 사람들의 자주적인 요구와 움직임 속에 늘상 대중조직이 있게 됩니다.  
즉 모순이 있는 곳에 자주성을 실현하려는 노력이 있고 그 실천을 집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여성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우리** 여성은 살아오는 과정에서 아니 길들여져 오는 과정에서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자주적이고 집단적인 본성을 무시당해왔습니다. 정치에서 여성의 높은 집안일이라며 사회참여도를 막아나서면서 여성의 정치의식을 낮추어 버렸고 경제에서 여성을 고학력 실업자의 문제가 여성을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만 고용하며(임금은 남성의 60%, 정리해고는 1순위) 차별을 만들었으며 문화에서 성상문화 이

## 토론 3. 조직영역 과제-자주적 여학생회 강화

1. 자주적 여학생운동의 정립  
(1) 자주적 여학생운동이란 무엇인가  
자주적 여학생운동은 한반도 이남의 여성들이 겪고 있는 여성문제의 원인을 사회구조적인 외세의 지배와 간섭, 그리고 기형적 자본주의 및 남녀를 분리차별하는 가부장제의 유기적인 결합에 두고 이를 여성 스스로의 단결된 힘으로 깨우쳐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 (2) 자주적 여학생운동과 다른 여성주의 여성운동 및 여성운동과의 차별성  
여학생운동을 풀이하는데 있어서 여성억압의 기원과 본질을 어디에 두는가 여성해방의 과정과 경로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등의 차이에 따라서 여성운동의 흐름들이 다양하게 나뉘는데 대중적으로 전이대립을 위시로한 여성운동의 흐름과 기타 다른 여성운동으로 대별해 본다.  
소위 자주적 여학생운동을 민족주의 여성운동으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여성문제의 원인을 한국사회의 사회 구조적인 모순 그라니까 분단의 구조와 자본주의적인 경제구조에 크게 기인한다고 보기 때문에 불연속 운동의 이름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편의상 민족주의 여성주의라고 나뉘어 부르는 것이지 꼭 어떠한 기준이 명확한 것은 아니기에 우리는 우리의 여학생운동이론을 자주적 여학생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편이 나을 것 같다.

●여성주의 운동흐름이란  
한반도의 여성운동은 실지로 많은 열과 어려움속에서 성장해왔다.  
구체적인 여성운동사는  
**99년 전이대립 총회 자료집** 참조

70년대 80년대에 들어와 여성노동자들의 의식성장 민족민주운동의 활성화 계급계층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그간 암흑시기를 겪고 있었던 여성운동에 있어서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여성들의 노동문제를 위시로하여 불합리한 법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많은 여성단체들이 생겨나고 자체적인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 당시 여성운동의 흐름은 당시의 민주화의 과제와 더불어서 여성해방을 이루려는 생각을 가진 여성운동가들이 많았으며 이는 당시의 운동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90년대 들어와서 많은 여성운동가들이 여성학에 대한 공부를 하고 유학을 다니며 그리고 일경 80년대와는 변화한 사회분위기속에서 민주화의 요구속에서 여성 고유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점을 반성하고 여성들의 문제 민주화가 이루어진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가부장제적인 요소와 여성차별적 요소를 중심으로하여 여성들의 정서와 조건에 맞는 여성운동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여성주의 여성운동의 모태는 여기서 출발하는데 사회구조적인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성들이 겪는 일상의 문제, 그리고 인류 최초의 계급이자 구별인 남녀의 차이와차별에 목도하면서 성의 문제를 중요시하게 제기하고 이를 중심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한마디로 여성주의 여성운동의 흐름은 여성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여성으로서 남성과의 차이 및 여성으로서의 긍정적 여성의 피해자로서의 관점들이 많이 드러난다.  
중요한 여성해방의 과제를 양성평등에 두고 양성평등을 위한 활동을 중심에 둔다.

테올로기를 유포하면서 가치판단의 기준이 외도가 중심이 되고 그를 위해 최첨단유행을 따르기 위한 소비와 향락문화 등을 좇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제국주의의 식민의 근거가 가장 극렬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기초여성이나 강제 중군위안부**의 문제입니다.  
여성의 성을 사고 파는 상품으로 인식하는데 무리있게 **이데올로기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군대의 사기고조라는 명목으로 주한미군의 성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한민족의 여성을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담요부대라 이름붙여졌던 일본의 식민지시대 유물인 **일본군 강제 중군 위안부**를 그대로 복원시킨 것에 다름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식민지 상황 속에서 한민족의 여성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미제국주의의 더러운 음모에 말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식민지 한국사회에서 자신의 자주성을 억압당하고 있는 **우리** 여성들은 집단을 지향하는 본성을 발휘시켜내는 자주적 여학생회에서 함께 투쟁으로 자신의 권리를 획득해야 할 것입니다.

유연성

자주적 대중조직은 우리 사회 성격과 임무에서 나오는 우리 시대의 가장 과학적이고 위력적인 학생회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대중조직은 대중의 자주적 이해와 요구에 우선으로 착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자주조직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우선적으로 착목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식민지 한국사회에서는 학우 자신 스스로의 자주성을 실현시킬 권리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와 요구가 일차적으로 민족해방의 과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리가 부조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의 요구, 운동의 조건과 토대, 주체적 역량의 축적정도에 따라 학우대중의 이해와 요구가 그 해당 소요시기에 성장 확대 강화될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주조직으로서의 발전은 대중조직이 확대 강화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시기 여학생운동의 요구되어지는 과제로 여학우의 대중화가 범국민 반미항전의 요구에 부응해서 여학우의 이해와 요구를 투쟁의 의지로 모아내어 확대 강화될 때 위력적인 체제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라는 집단 속에 자신을 소속시키고자 하는 요구는 현실 참여의식의 확대를 대변하는 것이고 사회참여로 나아가기 위해 여학우의 처지와 조건의 이해는 개별적으로 풀이할 수 없는 여학우의 이해와 요구를 집단화하고 사회화하는데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는 한 개인의 힘으로 풀이되지 않습니다. 여학우의 이해와 요구를 하나로 모아낼 때만이 투쟁의 방향과 방법이 보이는 것이고 집단적인 힘으로 전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주적 여학생운동은 민족자주와 계급해방을 통한 인간해방을 지향한다.  
자주적 여학생운동은 여성의 모순과 억압의 기원을 사회구조적인 모순에 기인한다고 보고 이남 사회의 여성문제는 우리나라가 외세에 의하여 지배와 간섭을 받고 있고 식민지 대리정권에 의하여 공고화되어 가고 있으며 또한 자본가들의 성차별적인 분리 지배와 착취를 통하여 남성과 여성의 모순을 격화시켜내고 있다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에 근거하여 여성해방의 과제를 민족자주와 계급해방으로 놓고 이를 해결하며 인간해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향점을 밝혀놓고 있다.

2. 대중조직 건설 강화에 관하여  
기층조직 건설 강화에는 단기적인 계획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1년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조직건설 강화의 계획-소위 총여학생회 발전 3개년-5개년 계획 같은 것을 내오고 그에따른 꾸준한 조직건설 강화의 계획들은 내야 한다.  
(1) 단대 여학생회

(2)과여부

1)과여부발전특별위원회

과여부에 대한 지도를 총여학생회에서 담보하게 위하여 총여학생회일꾼이 직접 과여부일꾼과의 모임을 가져감

모범 사례

- 전남대학교 총여학생회
- 96년부터 과여부발전특별위원회를 세워서 과여부장들과의 사업을 직접 총여학생회에서 지도
- 여학생운동 내지는 여성문제에 대한 낮은 시각에서부터의 학습
- 1년 과여부 사업계획서 작성
- 과여발특위 자체의 사업 계획
- 총여학생회 출범식에 과여발특위 발족식
- 과여발특위 일꾼들끼리 소풍
- 과여발특위차원의 가요제 및 행사참여

2)과여부장학교

과여부장들과 과회장 그리고 단대 여학생회일꾼들까지 모여서 함께

3)과학생회 단대학생회와의 3자 간담회

대부분 여학생회는 위상에 대한 논란과 각 단위마다 조직과 주체의 상황이 상이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대부분의 일꾼들이 여성문제 및 여학생운동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과 이후 사업과 투쟁에서 발생할 여러 가지 이견을 조정 해설하기 위하여 학기초 내지는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한다. 3자 간담회라고 하여 단대학생회-단대여학생회-총여학생회 이렇게 세단위가 모여서 하는 간담회를 일컫는다.

4)과간담회

성과적 : 평소때 여학생회에 대한 고민을 간담회를 통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일꾼들과의 관계 증진과 여학생회 사업과 요구에 대한 해설의 자리라 될  
한계점: 간담회의 내용과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한다. 잘못하면 총여학생회의 교양의 자리가 아니면 그냥 서로 할말이 없는 경우가 있고 서로미리 간담회 내용을 조정하여 토론과 합의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과여부 운영위

단과대학 여학생회 내지는 단대 여학생부에서 과여부장과 1주일에 한번씩 운영위를 통해서 사업을 논의 하고 학습과 토론을 벌이는 자리

6)과여부일꾼을 위한 교양지 발간

(3)소모임건설

성과  
과여부나 여학생회와는 또달리 단기간에 여학생운동일꾼을 키워낼 수 있는 유리한 방도  
장기적으로 여학생운동인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리한 점  
학생회에 대한 거부감이나 어려움을 가진 일꾼들을 모을 수 있는 장점

한계  
위상의 변화 및 소모임과 여학생회일꾼과의 갈등  
소모임 주체의 준비정도가 중요함  
안정적인 소모임에 대한 지도 담보

사례

단대여학생회 산하의 소식지편집위원회

성과 :구체적인 성과물이 눈에 드러남으로써 소모임일꾼들의 소모임의 성과를 직접 느낄수 있으며 단대 여학생회의 사업의 하나로 귀결됨으로써 여학생회 사업의 계기 및 대중에게 소식지의 형태로 돌아감으로써 대중성확보의차원에서 유리함  
극복과제  
소식지를 내기 위한 모임으로 전락되서는 안된다.  
그저 반작 소식지를 내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정기적인 모임과 학습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단대의 특성에 따른 소모임

단대별 특성에 맞는 소모임을 건설할 것에 대한 고민

(4)전반적인 총여학생회의 지도력 강화

총여학생회에 조직사업 담당부서 배치 활동의 내용을 명확히 내오자  
조직교육사업의 중요성  
조직1부장-골간단위 학생회일꾼과의 사업  
조직2부장-여학생회기증 전문성강화

총여학생회 산하 편집위원회의 구성

(5)기타조직강화방도

1학여대협

경리대학교 총여학생회 시행  
1학년 각 과마다 여학우 대표를 세워내고 여학우대표들이 구성원이 되는 1학여대협을 건설하여 모임을 진행 사업을 풀어나가는 방식  
성과적: 새내기 사업의 유리한 방도

여대의원제도 강화

1학여대협과 비슷하게 기총여학생회가 건설되기 어려운조건속에서 유리한 조직화방도  
여학생이 적은 과나 반반인 과에서는 시도해볼만하다.  
여학우들이 모여서 여학우들의 대표를 뽑는다.  
여대의원의 역할 및 활동에 대한 단대여학생회의 지도 및 설명 및 학우들에 대한 해설이 필요하다.  
여대의원을 뽑고 여대의원의 지도를 단대여학생회에서 직접적으로 진행한다.

3. 여학생운동의 전체운동의 독자성과 통일성

여학일꾼과 학생회 여일꾼모두를 포함하는 전학가모임

학생회일꾼들부터 여학생운동의 주체로 만들어가야 한다  
특히 골간단위에 있는 여일꾼들의 여학생운동 및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한다.

4. 다양한 형태의 잠신한 사업방법 창출

여학우를 지극히 사랑하던 지혜가 생긴다  
여학우를 주체로 만드는 사업  
여학우의 관심과 지향성을 동시에 추구하여야 한다  
여성가요제/여학우 팔찌를대회/자주여성민주남성친선잔치/여자씨름 및 권투/ 여학우돼지잡기/ 생생담잡기 대회/

일상적 여론 및 알림사업

화장실통신

여성문화제 사업

여성문제 둘다리 건너기/ 학우 의견 쓰기/둘다리

반미주간

성조기를 밝아라/성조기웃 바꿔가자

여학생운동토론회

주점 및 일일찾김

5. 전여대협 지역여대협 강화

전여대협 지역여대협의 필요성

전여대협 지역여대협은 여학생운동의 발전요구에 기인하여 나타난  
전여대협지역여대협 건설의 주동성을 높여내야함  
아직까지는 대중에게 낮은 조직-목적의식적인 노력에 필요함  
전여대협 수련회 및 출범식 등  
전여대협의 사업과 투쟁의 대중화  
-일민학우들의 참여할 수 있는 형식의 사업을 기획해보자  
전여대협을 받아안음으로써 대학 여학생운동 발전의 도움과 자람 및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전여대협 성폭력규제학칙제정공동대책위

사안별 연대모임

성명서 사업

연대모임 및 상층연대의 강화

토론 4. 대중투쟁과제

1. 여성정세에 대한 토론

(1)여성정세란 무엇인가, 여성정세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여성정세는 한반도의 여성역할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밝혀내고 현재 여성을 규정하고 억압하는 체요소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타파하기 위한 각계급계층의 여성민중들의 활

동이 어떻게 되고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이후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것이다.

(2)현재 한반도의 여성정세

여성역할의 주요 원인(모순)

민족모순/계급모순/성모순

여성민중의 삶을 규정하는 요소를 살펴보면 때 이따금 살아가는 여성들의 삶의 처지는 우선 이사회외 정치 경제적인 요소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겠다.

우선 한반도의 정치상황은 제국주의의 최첨방인 미국의 영향력을 들수 있다.

우리나라 군사 및 정보의 폭대기에는 미국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상황은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압력과 경제정책에 의하여 많은 부분 좌지우지 되고 있다.또한 문화적으로도 정치, 경제적인 영향력과 더불어 미국의 온갖 문화의 또다른 전시장이 되고 있다.

또한 미국뿐 아니라 일본등의 나라에도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맹주가 되려고 하는 일본의 야심속에서 군국주의의 부활 및 정치 경제, 문화적인 한국에 대한 간섭이 노골화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외세에 의한 한반도의 군사 정치 경제 문화적인 간섭은 국내의 상황에 커다란 전립돌모 되고 있으며 특히나 남북이 분단이 되어있는 상황속에서 주한미군주둔 및 한반도에대한 외세의 간섭은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외세에 있어서 자주적인 입장을 가지지못하는 현 정치권력들은 민중을 위한 정책적 결정보다는 당리당략과 자신의정권의유지를 위한 것을 중심으로 둔 정치를 행하고 있으며 특히 수구보수세력은 이러한 한반도 정치를 어렵게 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듯 민중과 민족을 중심에 두고 있지 않은 정치권력과외세의 간섭은 여성민중들의 권리를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남녀의 분리를 통한 분할통치 그리고 이러한 차별 이데올로기를 유포시켜서 이중의 이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인 유교적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및 외세에 의해 교묘히 유지되는 가부장제 신분제가 철폐되고 헌법상으로 남녀평등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현실은 아직도 여성과남성의 차이를 차별로 정당화하고 남성과 동등한 인간으로 보지않는 가부장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남녀차별의 의식과 결합된 가부장제 의식을 교묘히 결합시켜 여성들을 가정사회 양쪽에서 착취하고 있는 것이다.

(3)올해의 정세

올해의 여성계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여성노동자들의 투쟁

통일준비하는 여성들

일본군 위안부문제 남북과 함께 아시아 5개국이 공동 해결에 나선다

주한미군에 의한 여성범죄 여전히

성폭력문제 사회의 주요한 이슈로

여성들의 연대연합의 강화

전여대협 내부적으로

전여대협 출범식을 한층번 백만학우와함께 진행한 것

여성통일한마당

전여대협 총회, 출범식, 수련회등 안정적 대중적으로 성사

#### (4) 2001년 여성정세

1)

2000년 남북공동선언 및 이어진 장관급 회담과 이산가족의 교류와 노동절 초청등 북미간의 관계의 급속한 진전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의 변화 및 이남민중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민족대단결 의식의 고취되면서 통일의 주체역량이 축성되어지는 과정으로 통일에 대한 유리한 정세가 조성될 것이다. 특히 내년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답방과 내년 3월로 예정되어있는 남한 300-500여명의 민간급 교류가 예정되어 있고 이산가족부부의 편지교류 및 구제화되어 가고 있는 남북한의 경제협력등은 이미 급격한 통일로 나아가는 유리한 정세를 조성할 것이다.

이러한 분단의 강벽이 거두어지고 의세에 의한 간섭과 지배에 있어서도 일정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전반에 대한 변화가 눈에 띌 것이다.

우선 남북한이 화해의 무드로 돌아서면서 군사적 대결이 상당히 해소되고 주한미군등 외국군대의 주둔의 명분이 약해지면서 여성을 억압하는 도구로 되어오는 주한미군의 철거 및 외국군대에 의한 피해와 군사주의 문화의 부분별한 피해들을 견어낼 유리한 정세가 조성된다. 또한 통일이라는 민족적 중대사안을 펼쳐나아가는데 여성들의 참여를 끌어내고 여성들이 주체가 됨으로써 여성인지를 강화하고 여성민중의 유리한 정세를 만들어낼 수있다.

-자세한 내용은 통일투쟁의 내용에서

2)

제2의 imF가 다가오고 있다는 한국경제의 위기설이 다시한번 나오고 있다. 한때 1000대를 육박했던 중시가 500선 이하로 무너지고 계속적인 기업들의 도산과 대기업들의 위기속에서 여전히 노동자들의 해고와 구조조정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노동자들을 비롯한 농민들 전체적인 민중생존권의 정세는 2001년 여전히 위력을 떨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물결과 더불어서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여성들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위기는 더욱 실제적이 되어가고 있다. 구조조정의 최전선에 여성이 배치되어 있으며 인권의 사각지대라고 불리워지는 비정규직은 여성들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착취의 노골화가 되고 있다., 여성들의 비정규직화는 계속 지속될 것이며 이로인한 여성들의 투쟁또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 3)성폭력 매매춘에 대한 투쟁

성폭력 매매춘 문제가 2000년 주요한 이슈로 떠올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들이 전개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외와 가부장제와 결탁되어 근절은 요원하기만하다.

단순한 매매춘 성폭력의 처벌뿐 아니라 재화를 위한 교육과 대책마련까지 함께한 성폭력 매매춘 근절투쟁이 필요하며 올해의 성과를 이어서 내년에도 지속적인 투쟁들이 전개될 것이다

4)

여성의 권리에 대한 법제도의 이행을 위한 투쟁이 전개될 예정 최근몇년간 여성들의 권리를 위한 법제도의 제정투쟁들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투쟁의 결과로 미흡하나마 많은 법들이 신설되었으나 다른나라들에 비하면 여전히 미약한 수준이며 또한 지금까지 제정에 중심을 두었으나 이제는 시행과 철저한 감독을 주시므로 사안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한다.

#### 2. 2001년 여성들의 투쟁 방향

##### (1)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여성

분단으로 인한 여성의 피해

#### 2) 여성민중생존권투쟁-노동문제를중심으로

##### ①의식화중심으로

여성민중의 노동현실, 여대생의 취업현실에 대한 기본적인 파악 및 공개

##### ②구체적인 여대생 취업대책

여대생 취업에 대한 정보제공

여성노동자들과의 연계투쟁

실질적으로 대학에서부터 여대생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

다른대학의 사례

여성과 직업전략이라는 교양교과목 신설

여성취업과 지도자 육성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예산을 따서 신설

여학생부 및 여대생을 위한 대학내의 부서마련 및 예산증설

#### 3) 성폭력 매매춘 근절투쟁

학내 성폭력 근절

성폭력에 대한 대학내 실태조사

성상담소설치 및 성교육정기 실시

성폭력규제학칙에 대한 공청회 및 설명회

구체적성폭력 사건 발생시 적극대응

매매춘 근절투쟁

여성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 4) 가부장제 혁명투쟁

언어정화운동

호주제폐지운동

-연대사업과 여론화사업을 중심으로

-여성과 통일 교양자료 참조 : 아래 별첨하겠습니다.

#### 1)의식화 과정

##### ①민족과 통일에대한 의식화

##### ▶민족애의 강화

우리 사회가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각박해지면서 공동체문화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많은 권후세대 및 현재 신세대들은 민족이나 국가의 개념이 희박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가정이나 자신의 주위사람들에 국한된 사회와 집단의 경험속에서 민족애를 형성시킬 기회가 드물고 정치에 대한 관심을 자의적인 타의적인 적개가지게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수 있다.

우리 민족에 대한공경성 민족이라는 개념 민족의 운명과 자신의 운명과의연관성을 높게 만들어가는 것이 통일 교육의 첫걸음이며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 ▶분단으로 인한 여성민중의 피해

통일시대를 각계각층의 민중이 모두 준비해 들어가야 한다.

여성민중에게 유리한 통일시대를 주체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여성민중 및 여학우의 준비정도에 맞는 통일 투쟁을 만들어가야 한다.

#### 2)구체적인 방도

##### ①통일 교육의 활성화

-민족 주제상에 대한 교육

-이북에 대한 반북반공 이데올로기를 연공 연복의식으로 : 이북여성 바로알기등

##### ②이북과의 자주교류

-이북 여성단체 및 여학우들과의 교류를 강화한다

-교류의 내용의 문제

-각급단체별 및 사안별 교류내용 마련

자주교류단 및 방북단모집사업

주체를 명확히 세운다

대중적으로 모집한다.

실지 방북도 중요하지만 활동의 내용이 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진행상황 및 진척도를 늘 공개한다.

#### 초청사업

대학별 주요행사에 이북여대생 및 단체를 초청한다

일본군위안부문제 학생법정초청등

#### 실질적 방북투쟁

이북에 편지보내기-초청장 접수- 방북 실무접촉(시기 및 인원 활동내용확정)-방북을위한 준비 및 대중적 환송회-방북-환영회-활동보고 및 이후 계획논의

#### ③연방제 합의확산,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철거, 평화협정체결투쟁

#### 보론

### 가부장제를 끝장내는 투쟁!

가부장제 사회에서 양성이 모두 동등한 사회로 만들기!

#### 대학내 올바른 성문화 정착

#### 학내 성폭력 학칙 실제화(성폭력 규제 학칙 개정 투쟁)

##### 학내 성폭력의 실태와 특성

지난 1994년 8월 서울대우조교 사건에 공동대책위가 서울대학교에서 실시한 학내성폭력에 관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중 83%가 성폭력을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학내에서 성폭력의 가해자는 선배가49%, 학교친구가44%, 후배가35%등 대부분 아는 사람이 차지했다. 성폭력을 경험한 장소로는 과방, 동아리방, 학생회실 등이15%, 뒤종이중39%, MT-아우회 4% 등을 차지했고, 공동체모임에서 성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우조교사건을 비롯해 영남대 음대사건, 장원대 법대 송민호교수 성추행사건등 교수의 제지사이에도 여러 장소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여성이면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 일어나는 것이 지금 현실이다 . (97년 9대 총여학생회에서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부산대 학내 성폭력 실태조사에서도 80%를 넘는 여학생들이 언어적 유희적 포함한 성폭력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지료가 유실되어 자세한 정보는 현재 알 수 없음)

학내내 성폭력 사건은 그 시간의 특수성 때문에 발생빈도는 높지만 철저히 은폐되어 감추어져 있는 상태다. 이에 관련된 자료도 미비하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피해를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도 거의 없는 상태다. 결국 피해학생만 개인적인 지구력으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피해 다니는 소극적 대응방법으로 졸업시까지 건디는 피로움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개중에는 여론에 호소하거나 학교 당국에 적극적으로 알려내기도 한다. 그러나 서울대우조교성희롱 사건이나 장원대법대교수 성희롱사건이 경우 피해자가 학교당국에 호소했지만,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했다. 오히려 사건을 축소시키고, 동료교수만을 보호하고 두둔할 뿐 문제해결에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이 사건이후로 학내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을 포함한 성폭력의 실상이 학교당국과 교직원, 학생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 • 부산대의 경우

##### 성폭력 규제 학칙 제정과정

학칙 제정의 목소리는 96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 당시 총여학생회의 요구사항은 '성상담소 공간 마련, 성상담소 전문 인력 마련, 학내 성폭력 규제 학칙제정'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학교당국은 그 요구조건 중 성상담소 공간만 마련해주었다. 그러나 전문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성상담소는 무용지물이었다.

성폭력 규제 학칙 제정을 가장 핵심적인 공약으로 들고 나왔던 97년 9대 총여학생회는 여학우들을 대상으로 학내 성폭력 실태조사를 벌여내었으며, 학칙안을 학교당국에 제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실태조사의 결과에 많은 표현인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9대 총여는 학교당국에 대해 학내 성폭력상담실을 끊임없이 요구하여 98년초 학생생활연구소 내 성폭력상담실이 개설되는 성과를 내왔다.

98년 10대 총여학생회는 초기에 학칙 제정을 위한 총장과의 면담을 진행했지만 그 이후 꾸준한 연구사업과 학우들과 함께 진행하는 대중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학교당국에서 갑자기 마음을 바꿔 9월달에 총여학생회의 학칙안을 학교 마음대로 수정하여 학교측의 안으로 통과시켰다.

##### 이후 성폭력 규제 학칙 개정 투쟁

규제 학칙 제정 이후 부산대에서는 이른바 '노군 성폭력'사건으로 규제학칙의 문제점이 확인하게 드러났다.

1. 성폭력 상담소의 비전문성 문제
2. 성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심의권 문제

### 3. 규정 자체의 문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항이 없다.

-작용범위가 확실하지 않고 협소하다.

4.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대한 대안이 없는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5. 피해자의 치료보다는 시건에 더 관심이 많은 학칙

이상의 문제가 한 사건에서 드러났고, 이 사건이 능률 전에 공개되어 학내에서 무준하게 해결할 수 없어, 농학대에서 성폭력 규제 학칙 개정 서명운동을 벌여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2중 3중의 고통을 겪어 결국 개처와 합의하고 말았다.

하여 개정서명운동을 제대로 총화하지 못하고 99년을 접었다.

2000년 성폭력 규제 학칙 재,개정 공대위 발족 이후 부산대에서는 성폭력 규제 학칙 개정운동을 벌여가고 있다.

99년에 이어 학내의 잇따른 성폭력 사건을 통해서 규제 학칙의 유명무실이 완전히 드러났다.

현재는 학내 성폭력 근절, 성폭력 규제 학칙 개정을 위한 민중요원 쪽지 쓰기, 사이버 토론회 등을 통해 학우들과 함께 하는 학칙 개정운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총학생회 학처와의 함께 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지 규결대를 학교 측에 제안하고 있다.

또한 현재 발생한 도서관 성폭력 사건으로 성폭력 규제 학칙 개정운동을 벌여내고 있다.

(다른 학교의 예를 총화해주세요)

### 서울대의 경우

서울대는 99년 11월부터 진행된 성폭력 규제 학칙 개정운동이 6월 15일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대한 규정'을 공포함으로써 그 결실을 보았다. 그러나, 서울대 또한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어 실질적인 규제학칙의 성격을 가지기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서울대가 벌인 성폭력 규제 학칙 개정 운동은 여타의 모범이 된다.

서울대의 경우 1995년 신장류 교수 사건으로 성폭력 규제 학칙 개정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때 4000명이 규제 학칙 개정 서명에 동참하였다. 그리고 서울대 내 단체(사회대, 인문대, 공대)에서 성폭력 학생회칙을 제정했으며, 올 9월 30일에는 과에서 교수와 함께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다.

다만, 학칙 제정의 전반적 흐름을 구하지 못하여, 인문대 학생회칙 제정 과정만 살는다.

### 서울대 인문대학 지지규약 제정 과정에 관한 약명

우선 전년대 개최 이전에 마땅히 있어야할 대중적 논의들이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지지규약의 필요성에 대한 대중적인 합의가 부재하였던 상황에서, 규약 제정적인 움직임에 관한 결정과 이후 지지규약안 초안 마련 과정이 대단히 급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몇가지 정점들을 미리 제시하면서 대중의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규약에 관한 환기를 한 다음 지지규약안의 내용을 '공모' 등의 형식을 통하여 대중과 직접 구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여우방과 학생회 집행부 인자가 여우동에서 제안한 기존의 '모범안'을 거의 전제하는 수준에서 초안을 마련되었다. 또한 그렇게 마련된 초안을 가지고서라도 전년대 이전에 대중적으로 공표하고 이에 대한 논쟁의 과정을 거치는 공론의 과정이 필요하였으나, 이 역시도 미흡하였다. 예컨대, 성폭력에 대한 규정이나 규제 방식, 그리고 지지규약의 강제성 여부 등의 문제는 많은 논쟁이 있을 수 있을 만한 것이었으나(실제 이러한 문제는 전년대 '이후에 제기되었다'), 대중과의 충분한 공론장 형성을 거치지 못하였고, 이는 이후 지지규약의 '지지규약으로서의 정당성'에 대하여 심각한 회의를 불러오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논의의 부재라는 문제는 전년대(장) 안에서 각과 학생회 및 각급 지지단위들의 대표자들이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대중단위에서의 초보적 논의들조차 대체적으로 부재한 상황에서, 전년대 측에서 '처음으로' 성폭력적 대학문화에 대한 공개토론을 벌이고, 이어 학우들을 대표하여 성폭력 '의결'까지 하게 되는 희극을 연출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르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하나의 '원죄'로서 작용하면서, 이후 벌어진 성폭력 논쟁에서 불거진 지지규약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넘어, 학생회사의 민주주의와 학생회의 대표성에 대한 근본적 문제까지 제기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일련의 '나쁜 상황'에 이르게된 근본적 원인은 성폭력적 문화에 대한 학생회사의 논의지반

으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모니터링 팀은 여성학 수업의 평가와 달리 여성학을 듣는 학생들과 여성 지지단체, 그리고 여성학 강사가 모여서 구체적인 문제제기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II. WORK-SHOP - 모니터 결과물 평가하고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논의와 이를 바탕으로 한 대안적인 여성학 강좌를 모색하는 자리. 이 자리에서는 앞으로의 여성학 수업의 방향을 찾아내고 학내 여성운동의 단위화와 총여학생회, 여성학 강사들이 여성학 수업 소통 공간을 확보의 일일 진행

III. 방학 중 기획 강좌 - 워크샵을 기반으로 새로운 여성학의 시화강좌 진행

으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모니터링 팀은 여성학 수업의 평가와 달리 여성학을 듣는 학생들과 여성 지지단체, 그리고 여성학 강사가 모여서 구체적인 문제제기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II. WORK-SHOP - 모니터 결과물 평가하고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논의와 이를 바탕으로 한 대안적인 여성학 강좌를 모색하는 자리. 이 자리에서는 앞으로의 여성학 수업의 방향을 찾아내고 학내 여성운동의 단위화와 총여학생회, 여성학 강사들이 여성학 수업 소통 공간을 확보의 일일 진행

III. 방학 중 기획 강좌 - 워크샵을 기반으로 새로운 여성학의 시화강좌 진행

으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모니터링 팀은 여성학 수업의 평가와 달리 여성학을 듣는 학생들과 여성 지지단체, 그리고 여성학 강사가 모여서 구체적인 문제제기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II. WORK-SHOP - 모니터 결과물 평가하고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논의와 이를 바탕으로 한 대안적인 여성학 강좌를 모색하는 자리. 이 자리에서는 앞으로의 여성학 수업의 방향을 찾아내고 학내 여성운동의 단위화와 총여학생회, 여성학 강사들이 여성학 수업 소통 공간을 확보의 일일 진행

III. 방학 중 기획 강좌 - 워크샵을 기반으로 새로운 여성학의 시화강좌 진행

으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모니터링 팀은 여성학 수업의 평가와 달리 여성학을 듣는 학생들과 여성 지지단체, 그리고 여성학 강사가 모여서 구체적인 문제제기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II. WORK-SHOP - 모니터 결과물 평가하고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논의와 이를 바탕으로 한 대안적인 여성학 강좌를 모색하는 자리. 이 자리에서는 앞으로의 여성학 수업의 방향을 찾아내고 학내 여성운동의 단위화와 총여학생회, 여성학 강사들이 여성학 수업 소통 공간을 확보의 일일 진행

III. 방학 중 기획 강좌 - 워크샵을 기반으로 새로운 여성학의 시화강좌 진행

으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모니터링 팀은 여성학 수업의 평가와 달리 여성학을 듣는 학생들과 여성 지지단체, 그리고 여성학 강사가 모여서 구체적인 문제제기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II. WORK-SHOP - 모니터 결과물 평가하고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논의와 이를 바탕으로 한 대안적인 여성학 강좌를 모색하는 자리. 이 자리에서는 앞으로의 여성학 수업의 방향을 찾아내고 학내 여성운동의 단위화와 총여학생회, 여성학 강사들이 여성학 수업 소통 공간을 확보의 일일 진행

III. 방학 중 기획 강좌 - 워크샵을 기반으로 새로운 여성학의 시화강좌 진행

으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모니터링 팀은 여성학 수업의 평가와 달리 여성학을 듣는 학생들과 여성 지지단체, 그리고 여성학 강사가 모여서 구체적인 문제제기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II. WORK-SHOP - 모니터 결과물 평가하고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논의와 이를 바탕으로 한 대안적인 여성학 강좌를 모색하는 자리. 이 자리에서는 앞으로의 여성학 수업의 방향을 찾아내고 학내 여성운동의 단위화와 총여학생회, 여성학 강사들이 여성학 수업 소통 공간을 확보의 일일 진행

III. 방학 중 기획 강좌 - 워크샵을 기반으로 새로운 여성학의 시화강좌 진행

으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모니터링 팀은 여성학 수업의 평가와 달리 여성학을 듣는 학생들과 여성 지지단체, 그리고 여성학 강사가 모여서 구체적인 문제제기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II. WORK-SHOP - 모니터 결과물 평가하고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논의와 이를 바탕으로 한 대안적인 여성학 강좌를 모색하는 자리. 이 자리에서는 앞으로의 여성학 수업의 방향을 찾아내고 학내 여성운동의 단위화와 총여학생회, 여성학 강사들이 여성학 수업 소통 공간을 확보의 일일 진행

III. 방학 중 기획 강좌 - 워크샵을 기반으로 새로운 여성학의 시화강좌 진행

으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모니터링 팀은 여성학 수업의 평가와 달리 여성학을 듣는 학생들과 여성 지지단체, 그리고 여성학 강사가 모여서 구체적인 문제제기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II. WORK-SHOP - 모니터 결과물 평가하고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논의와 이를 바탕으로 한 대안적인 여성학 강좌를 모색하는 자리. 이 자리에서는 앞으로의 여성학 수업의 방향을 찾아내고 학내 여성운동의 단위화와 총여학생회, 여성학 강사들이 여성학 수업 소통 공간을 확보의 일일 진행

III. 방학 중 기획 강좌 - 워크샵을 기반으로 새로운 여성학의 시화강좌 진행

의 부재라는 문제와 함께, 이러한 논의지반을 만들고 대중과의 싸움을 통해 새로운 대중(지)중성운동을 형성하려는 학생회 운동주체 및 여타의 운동주체들의 주도면밀한 계획의 부재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생회를 지지형성기반으로 한 기항(既航)된 운동주체들이 성격 차이에 의한 적대(對)대체로 둔감했던 것, 또한 이러한 학생회사내 반성폭력운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여성)운동주체 및 단위들이 인문대 내에서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을 또한 지적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성폭력 규제 학칙 재,개정 성의 성과와 한계  
성폭력 규제 학칙이 제정, 개정된 학교의 제정, 개정 통로를 총화하기 어려워 부산대의 경우를 가지고 이 투쟁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본다.

성과  
- 몇 년 동안의 꾸준한 요구 속에 성폭력 규제 학칙이 제정된 것을 성과로 볼 수 있다.  
- 성폭력 규제 학칙의 제,개정 과정 속에서 성폭력의 심각성을 학우들이 인식하게 되었다.

- 개정 운동의 과정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학칙과 함께 해설해나가고 있어, 학우들의 입으로 학칙 개정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 학처와의 함께 성폭력 규제 학칙 개정을 논의하고, 학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지 규결대의 요구를 함께 만들어 냈다.

한계  
- 학내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인식의 흐름 속에서 개정 운동이 나오지 못한 한계가 있다.  
- 성폭력 문제를 총여학생회에서만 하는 일쫓으로 생각하고, 단위 학생회 총학생회와 함께 개정 운동을 벌여내지 못하기에 합한 투쟁이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  
- 성폭력 처리와 해결에 있어서 아직 양성학의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후  
- 성폭력 규제 학칙 개정운동을 총학생회, 단체 학생회, 동아리 등과 함께 전일적으로 벌여내야 할 것이다.  
- 좀더 내용성 있는 성폭력 규제 학칙 개정 투쟁의 의식화 과정이 필요하다.  
- 학우들이 개정 투쟁의 주체가 되도록 투쟁을 만들어내야 한다

성교육 및 여성학강의 증강  
-성폭력 규제 학칙 재,개정 투쟁의 내용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처리하고 해결하는 것보다 우선하고 중요한 것은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열거된 중고등학교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남학생의 대부분이 피상적인 성에 대한 지식으로 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것이 그릇되게 분출되는 경향이 크다고 나타났다.

이는 대내내 남학생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며, 대학의 경우에는 경험까지 더해져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더 클 것이다. 하기에 학내에서 성폭력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성교육이 의무화되어야 한다.

- 특히 여성학의 경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여성학이 그 관심을 제대로 쥐고 있어야 양성에게 올바른 인식을 심어 주고, 이것이 실천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부산대의 경우만 보아도 여성학 강의를 통해서 얻는 것은 고작해야 피일일 정도이다. 하기에 여성학의 강의 내용을 총여학생회에서 제안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부산대의 경우, 여성학관련 강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총여학생회에서 공약으로 내건 적이 있다. 그러나 그 수준은 문제제기와 앞으로 바꾸자는 내용에 머물고 있다.

이에 연대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1. 여성학 모니터링 팀의 구성  
2000년 1학기에 개설되는 모든 강좌를 대상으로 하여 각 수업당 2~3명의 모니터링 요원을 모집합니다. 모니터링 팀은 2주에 한 번씩 모여서 그 기간 동안의 수업내용을 평가하고 수업에 관해서 느끼는 문제점이나 생각들을 상세하고 구체적

-지역여성단체와의 일대일 교류 강화  
-사안별 대화회 및 공동 연대투쟁의 강화 속에서 지역운동체 건설

● 연대연합의 중요성  
90년대 후반에 들어서 여학생운동은 더욱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고 민중들의 삶에 더욱 구체적으로 다가 가고 있음이 특징이다. 그만큼 대중들의 이해와 요구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에 반해 여학생운동의 대중적인 총여학생회의 현실은 어떠한가? 아니 굳이 총여학생회가 아니라라도 여학생위원회든 여성위원회든 그러면 체계의 공간이든 사람이 없고 재생산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아 고민이 많다. 여기에 각 학교들간의 연합, 여성단체와의 연대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여학생운동을 전문화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 전문화가 곧 여학생운동의 조직력을 담보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지점에서 연합, 연대가 중요한 것이다.

●서울지역  
서울지역은 사안별 대화회가 비교적 활발하게 구성이 되고 있다. 예를들면 들 상반기 통신공간을 떠들석하게 했던 군사검열을 반대하는 모임, 동두천에서 이경숙씨가 사망했을 때 군사지역 매매춘을 반대하는 여성들의 모임인 CAMP가 만들어졌고 IMF이후 여성노동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국여성노동조합과의 연대체인 '노동자기'가 결성되었다. 사안별 대화회는 사상과 정견을 뛰어넘어 결성된다는 측면에서 여학생운동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기도 하지만, 이후 하나의 지역운동체로 건설되기까지는 아직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계가 무엇인?...  
주체의 부재  
여성관련한 사안별 투쟁은 하고 있지만 자구,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여학단위와의 소통이 부재한 것이 사실이다. 그 중간다리 역할이 필요하다.

●총여의 소통방법  
-단위의 자립자활력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단원된 일꾼이 그 단위로 들어가 정치사업하는 것이다. 물론 이과정은 2년경도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확실하게 변혁운동의 한 길에서 여성운동을 지향하는 우리 사회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골간일꾼들을 정치사업하는 것이다.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 모든 학교가 일꾼 수련회라든지 일꾼 교양 자리가 있을 것이다. 그 자리부터 시작해서 총여학생회의 정치사업을 할 수 있는 모든 소통공간을 장악하는 것이다. 가장 많이 대두되는 일꾼 교양은 성폭력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도 하다. 특히 각 단위 대표자들에 대해서는 이에 철저하게 교양할 필요가 있다. 대표자는 우리운동의 일꾼이기 때문이다.

또 기저촌 활동이나 여학생들의 모임지도를 각 단위 골간여학생들에게도 제안하는 것이다. 특히 기저촌 활동은 여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활동으로 여학생운동을 이야기하는 데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활이든 농활이든 여성민중의 삶으로 이야기하는 것 또한 골간일꾼들을 교양 단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총여에서 다양한 모임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모임은 총여의 정체성을 확실히 밝힐 수 있는 모임이어야 한다. 예를들면 여성연년 기관인 권위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모의법정에 함께 할 모임을 만드는 것, 또는 기저촌 활동을 다녀온 사람들이 모임을 만드는 것 등이다. 다만 모임의 주체가 명확해야 한다.

## \*연대연합의 강화에 대해서

● 지역운동체 건설을 위한 제안

운동이라 함은 집단적인 것이어야 한다. 사람의 힘이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모아졌을 때만이 민중승리의 그 목표지점에 더 다가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지역운동체건설을 위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보다 넓은 지역운동체 건설을 위해서는 사안별 대책위, 또는 연대모임에 깊이있게 연대해야 한다. 그 연대모임 안에서 우리의 투쟁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주의내 뒤편 하며 서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좀더 풀 넓게 그 운동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하게 제기되는 여성운동의 흐름에 깊이있게 연대하고 우리가 가져가야 할 자, 민, 통의 원칙을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여성민중에게 복무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